

1월 1일(월) / 렘25-28장

▶**내용요약:** 예레미야 25장은 유다가 멸망하여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한다. 이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다. 26장은 선지자가 다시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나 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하나 상당수는 이를 거부한다. 27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국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살 길임을 확인해준다. 28장은 거짓 평화를 외치는 하나냐와 대결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다.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결국 죽음을 맞는다.

▶**질문:**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할 때 그를 도와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아서 죽이지 못하게 한 사반의 아들 이름은?(26장)

▶**생각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예정하셨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적과 싸울 것을 고집하며 항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에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예언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행하고 있는가?**

1월 4일(목) / 렘37-40장

▶**내용요약:** 37장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진다. 38장은 에벳벨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지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묻는다. 39장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레미야가 석방된다. 40장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유다 총독 그다랴가 백성들을 모은다.

▶**질문:** 다음은 누가 한 말인가?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40장)

▶**생각하기:** 유다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국가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지만 이와 달리 바벨론 군대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인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1월 7일(주일) / 렘49-52장

▶**내용요약:** 49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다.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술, 엘람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0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귀환을 함께 말씀한다. 51장은 바벨론에 내릴 재앙이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육하고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

1월 2일(화) / 렘29-32장

▶**내용요약:**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전달한다. 하나님은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임을 밝히신다. 30장은 포로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선포한다. 31장은 하나님이 유다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실현된다. 32장은 시위대 딸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하고 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

▶**질문:**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 백성들이 거짓을 믿게 하였다고 하시며 벌하겠다고 하신 사람은 누구인가?(29장)

▶**생각하기:** 유다의 멸망과 이후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31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과 **새언약**을 맺으신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31:33)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신다.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1월 5일(금) / 렘41-44장

▶**내용요약:** 41장에서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을 모두 죽인다. 요하난이 일어나 반란을 진압한다. 42장은 요하난과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권면하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된다. 43장에서는 요하난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애굽의 멸망을 예언한다. 44장은 유다 백성은 애굽에 가서도 자신들이 심판받은 원인이었던 우상숭배를 지속한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신다.

▶**질문:** 느다냐의 아들이자 장관인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곳은 어디인가?(41장)

▶**생각하기:**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우상숭배로 인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애굽에까지 피난 갔음에도 거기에서도 우상숭배를 지속한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너희들의 악행을 잊었느냐?”**고 한탄하신다. 유다가 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동일한 죄를 짓는 유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짓고 있는 동일한 죄는 무엇인가?**

하셨으며 후에는 자기 백성을 위해 보복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에 이스라엘과 달리 회복 없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52장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과정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여호야긴의 말년이 상세히 기록된다.

▶**질문:**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간지 몇 년째에 감옥에서 풀려 자유를 얻는가?(52장)

1월 3일(수) / 렘33-36장

▶**내용요약:** 33장은 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음이 재건되고 포로가 귀환할 것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다. 34장은 시드기야의 최후와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언한다. 35장은 선조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의 모습과 이와 대조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책망한다. 36장은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나 여호야김은 이를 불태우는 악한 행동을 한다.

▶**질문:** 예레미야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이를 성전에서 읽은 네리야의 아들은 누구인가?(36장)

▶**생각하기:** 36장에서는 하나님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여호야김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신과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말씀을 불태워 없애버렸던 것이다. **하나님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1월 6일(토) / 렘45-48장

▶**내용요약:** 45장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인 바룩이 당한 고통과 슬픔을 묘사하고 이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기록한다. 46장은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한다. 47장은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한다. 48장은 모압의 교만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한다. 하지만 모압은 황폐되고 조롱받겠지만 후에는 회복될 것도 함께 말씀하신다.

▶**질문:** 동일하게 들어갈 말로 괄호를 채우세요. “여호와와 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를 받을 것이로다.”(48장)

▶**생각하기:** 예레미야의 동역자인 바룩이 자신의 고난과 슬픔을 토로하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45:4)고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것을 무너뜨리거나 또한 심은 것은 다시 뽑기도 한다고 하신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불평하기보다 **은혜로 주신 인생 속에서 감사를 찾는 성서인들이 되기를!**

▶**생각하기:**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복의 하나님**으로 묘사하신다. “여호와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51:56)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훈계하고자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죄를 물으신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 백성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